

冠岳語文研究 第1輯

朝鮮前期의 文學觀에 대하여

閔 丙 秀

1976. 10

朝鮮前期의 文學觀에 대하여

閔 丙 秀*

1. 序言—文學觀과 文學의 內質

本稿의 意圖가 우리나라 傳統時代의 文學觀을 考究하는데 있으면서도 다만 그 時代를 朝鮮前期에 限定한 것은 대개 다음과 같은 두가지 理由에서이다. 첫째, 高麗時代에 있어서는 주로 文學의 內質에 관한 문제 그 가운데서도 특히 詩論과 같은 것이 中心課題가 되어 왔을 뿐 文學을 論하는데 있어 그 標準이 되어온 思想的 背景이 鮮明하게 浮刻되지 않아 사실상 文學의 形式的인 面을 規制해온 文學觀의 定立을 보지 못하고 다만 朱子學이 輸入된 以後에 있어 그 微朕이 보이는 정도에서 그쳤기 때문이다. 둘째, 朝鮮時代에 있어서는 이미 그 前期에 形成 固着된 文學觀의 趨移가 後期에 이르기 까지 特記할만한 變轉이 없이 一貫되어 왔으므로 叙述의 번거러움을 덜기 위해 그 時期를 朝鮮時代 前記로 限定한 것이다.

우리나라 傳統時代의 文學理論을 究明하는데 있어서는 마땅히 다음과 같은 課題들에 대한 解明이 앞서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 오늘날 우리가 詩·文·雜著의 總體的인 概念으로 把握하고 있는 「文學」의 字義와 그 內容의 含義를 溯考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는 文學의 本質이 文學의 內質에서 辨別되지 못하고 오히려 文學外的인 思想的 標準에 의하여 論議되어 온 東洋社會의 傳統的인 文學觀을 考究하는 노력이 모를지

* 서울大 國語國文學科 助教授(古典文學專攻)

기 뒤달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一聯의 作業이 遂行될 경우, 學術·文·文章 등 多様な 內容을 含義하고 있는 傳統時代의 文學이 걸어온 스스로의 歷史가 解明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主로 哲學的 思想的인 標準에 의하여 文學을 論한 朝鮮時代의 文學觀이 當時의 文學理論이 形成되는 過程에 있어 어떠한 구실을 하였는가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文學觀이 곧 傳統時代의 文學理論을 萎縮시킨 決定的인 沮害 要素로 指摘되어야 한다는 事實도 아울러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흔히 東西洋의 詩精神을 比較함에 있어 東洋의 그것을 功利와 効用面에 치중한 것이라 하고 西洋의 詩精神을 模倣의 技術에 치중한 것이라 한다.¹⁾ 물론 이러한 發想은 文學이 가지고 있는 두가지 機能 即 敎示的 機能과 快樂的 技能을 空認하는 過程에서 導出된 것이라 보아지지만, 그러나 文學의 內質을 論함에 있어 洋의 東西에 따라 이를 區別하려 드는 노력이 얼마나 큰 意味를 가지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東洋社會의 文學을 論함에 있어서는 먼저 文學을 한갓 道의 表現 手段으로만 보아 온 「文以貫道」나 「文以載道」와 같은 傳統的인 文學觀이 보다 重要的 課題로 浮刻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注目해야 할 것이다. 물론 中國의 六朝時代나 우리나라 高麗時代에 있어서와 같이 文學의 內質이 重要視된 時期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文은 載道之器요 詩는 한갓 文章의 靡者로 보아 온 傳統的인 文學觀은 우리나라 朝鮮時代의 文學 研究에 있어 중요한 課題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學界에서 이룩한 이 方面의 業績이 결코 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대부분이 文學의 內質에 관한 문제, 특히 詩論과 같은 것에 偏重함으로써 사실상 文學理論 위에 君臨하여 文學理論 자체를 規制해 온 文學觀의 구실에 대하여 解明하는 過程을 看過하였던 것이며 따라서 文學觀과 文學理論을 有機的으로 把握 追求하는 노력도 두드러지

1) 丘仁煥·丘昌煥, 文學概論, 서울, 三英社, 1976. p. 92.

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詩論과 같은 文學의 內質에 관한 문제를 究明함에 앞서 먼저 文學·文章·文 등으로 標榜된 傳統時代의 文學에 대한 字義와 그 內容의 含義를 살피고 나아가서는 朝鮮時代 前期에 形成된 傳統的인 文學觀의 一端을 考究해 보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傳統時代의 文學의 內質을 研究하는데 一助가 된다면 幸이 되겠다.

2. 文學·文章·文

文學이란 말이 使用된 최초의 例는 대개 孔門四科에서 求하고 있다.
論語 先進에

德行 顏淵閔子騫冉伯牛仲弓 言語 宰我子貢 政事 冉有季路 文學 子游子夏

라 하여 이른바 十哲을 그 所長에 따라 四科로 나눈 가운데서 文學엔 子游·子夏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文學이라고 한 것은 물론 文學批評의 對象으로서의 純文學 그것이 아니고 文章과 博學의 二義를 兼有하고 있는 廣漠無垠한 概念으로 使用된 것으로 一切의 書籍과 一切의 學問을 內包하는 것이다. 楊雄이 그의 法言 吾子篇에서 「子游子夏 得其書矣」라고 한 것과 邢昺의 論語疏에 「文章博學 則有子游子夏」라고 한 가운데서 「書」 또는 「博學」이라고 한 것은 곧 이 文學을 두고 이른 것이다. 그러나 邢氏가 말한 文章·博學은 文學에 두개의 分科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孔門에서 말하는 文學 속에는 이 두가지 意義가 함께 內包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孔門에서 비롯된 文學이라는 名號는 이것이 近代의인 의미에서의 文學이 아닌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當時에 이미 詩·書·文 등의 名稱이 使用되었지만, 이는 典籍의 性質을 分類할 때에 詩 또는 「書」라 하였으며 文辭의 體裁를 區別할 때 「詩」·「文」이라 한 것이다. 그러므로 孔門에서 이른바 「詩」라는 것

은 邢氏가 말한 「文章」과 같은 뜻이며 또 「文」 또는 「書」라고 한 것은 邢氏의 「博學」과 같은 것이어서 결국 이것들은 「文學」이라는 이름으로 統攝되는 것들인 것이다.²⁾ 그리고 이 周秦時代에 있어서의 文學의 概念에 대해서는 清末의 學者인 曾國蕃이 儒學思想을 分類 概觀한 가운데에도 나타나 있다.³⁾ 曾國蕃은 爲學之術의 起源을 孔門四科에 두고, 儒學思想을 다음과 같이 四個部門으로 分類한바 있다.

- ① 義理：孔門의 「德行」의 科. 오늘날의 宋學. 例로는 周敦頤, 程顥兄弟, 張載朱熹 등
- ② 考據：孔門의 「文學」의 科. 오늘날의 漢學. 例로는 許慎, 鄭玄, 顧炎武, 姚鼐 등
- ③ 辭章：孔門의 「言語」의 科. 從古의 藝文과 今世의 制·義·詩·賦. 例로는 韓愈, 柳宗元, 歐陽修, 曾鞏, 李白, 杜甫, 蘇軾, 黃庭堅 등
- ④ 經濟：孔門의 「德行」으로 政事를 兼한 것. 前代의 典禮·政書와 當世의 掌故. 例로는 諸葛亮, 陸贄, 范仲淹, 司馬光 등.

여기에서도 孔門에서 이르는 文學은 考據之學 또는 經學에 가까운 것으로 指摘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孔子의 文學觀의 一端을 살펴보았거니와 여기서 다시 한번 分明히 해 두고 넘어가야 할 것은 孔子가 文을 崇尚한 것은 到處에 流露되고 있는 사실이지마는 孔子에 있어서의 「文」은 어디까지나 學術的인 傾向에 多分히 侧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論語 公冶長에 『子貢問曰「孔文子何以謂之文也」子曰「敏而好學 不恥下問 是以謂之文也」』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栗谷의 文策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있다.⁴⁾

及其門人 設四科之目 而子游子夏以文學稱焉 則雖若外道言文 然而三代之學 皆所以明人倫 則古人之所謂文學者 可知已 豈若後世之雕蟲篆刻者哉 自漢以來 上無善治 下無眞儒 道術日壞 衆流雜出 世之儒名者 徒知有文 而不知有道 浮華爲尚

2) 郭紹虞, 中國文學批評史 上冊, 臺灣商務印書館, 1969. pp. 11~12

3) 千寬宇, 韓國實學思想史(韓國文化史大系 VI. p. 998)에서 再引

4) 李珥, 栗谷全書 拾遺 卷六 雜著三

駁雜爲宗 斯文之弊 極矣…… 游夏之學 兼知兼行……

孔門에서의 文學은 비록 道를 疎外하고 文을 말한 것이지만 그러나 夏·殷·周 三代의 學이 모두 人倫을 밝힌 것이므로 古人의 이른바 文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겠다는 것이다. 孔門의 文學은 곧 三代의 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어서 이 또한 다분히 學術的인 意義로 把握한 것이며 浮華한 修飾만을 일삼던 漢代以後의 文과 스스로 區別이 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子游와 子夏의 文學은 知와 行을 兼하고 있다 하였는데 이것은 곧 孔門의 文學觀에서 가장 重要한 두 方面으로 指擧되고 있는 尙文·尙用的 兩面性과도 符合되는 所論인 것이다. 이상을 要約하면 周秦時代에 있어서의 이른바 文學은 文章과 博學의 二義를 同時에 兼有하고 있어 文 곧 學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文學의 概念이며 최초의 文學概念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兩漢時代에 이르면 文과 學을 分別하여 부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文學과 文章을 또한 分別하여 使用하게 되었다. 單字로써 말하던 文과 學이 같지 않은 것이 되고 連語로써 말하면 文章과 文學이 같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漢代에 있어서의 文學은 다만 學術的인 意義만 含有하게 되었고 文 또는 文章은 오직 詞章만을 指論하는 것이 되었는데 이에 이르러 近代人이 일컫는 文學의 意義와 가깝고 진 것이다. 史記나 漢書에 나오는 「文學」은 대개 學術을 指稱하는 것이며 이에 反하여 美而動人하는 文辭를, 다른 文件과 區別해서, 文 또는 文章이라 했던 것이다. 叙上한 栗谷의 文策에서, 雕蟲篆刻은 곧 漢代 文學의 傾向을 指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浮華爲尙 駁雜爲宗은 六朝時代의 純粹文學을 가리킨 것일 것이다.

魏晉南北朝時代에 있어서는 文學이 이때에 와서 비로소 學術과 劃然히 區別이 되어 스스로 그의 獨自의인 領域을 構築하게 되었으며 오늘날의 文學과 그 意義를 같이하게 된 것이다. 文學批評의 專門的인 作業

이 비롯된 것도 물론 이때의 일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六朝의 文學은 그 文辭의 性格에 따라 文과 筆로 나누기도 하는바, 이에 따르면 文은 주로 情이나 美感을 重視하는 것으로 把握하여 純粹文學이라 하고 筆은 그 重히 하는 것이 知와 應用에 있다 하여 이를 雜文學이라 부른 것이다. 그러나 隋唐・北宋에 이르면 다시 復古의 風이 일어나게 된다. 隋唐 五대의 創作界가 淫靡 浮濫으로만 흐르게 됨에 따라 이때에 六朝 文學에 대한 根本的인 懷疑를 가지게 된 것이다. 六朝에 있어서는 文學의 本質을 주로 文學의 內質에서 辨別하려 함으로써 文學을 論하는 標準으로서의 文學觀을 學의 바깥에서 求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唐代에 있어서는 文學을 論하는 標準을 이미 聖賢의 著作에서 求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聖賢의 著作을 통해서 道를 밝히려 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文에 치우친 結果가 되고 만 것이다. 그래서 詩人은 「文以貫道」를 말하고 「文以載道」는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貫道라고 하면 이는 이미 文을 因하여 道를 보는 것이 되므로 道는 반드시 文에 依憑해야만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文과 道의 輕重이 나타나게 되며 結果적으로 文과 道는 二個物이 되고 마는 것이다. 李漢이 韓昌黎集 序에서 「文者貫道之器」라고 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端的인 說明이 될 것이다.

宋代에 있어서는 한걸음 나아가 聖賢의 思想이 文을 論하는 標準이 됨으로써 文學은 한갓 道學의 附庸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고 말았다. 周敦頤가 通書에서 밝힌 「文所以載道也」가 그 代表的인 發言이 될 것이다. 載道에 있어서의 文은 道를 傳하는 手段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나라 朝鮮時代에 있어서는 國初에 이미 麗末에 輸入된 宋代의 儒學이 政治理念으로 採擇됨에 따라 그 文學觀에 있어서도 唐宋以來의 「文以貫道」나 「文以載道」가 朝鮮時代 文學理論의 支配原理로 君臨하게 되

있다. 그래서 鄭道傳은⁵⁾

日月星辰 天之文也 山川草木 地之文也 詩書禮樂 人之文也 然天以氣 地以形 而人則以道 故曰 文者載道之器……

라 하여 日月星辰은 天의 表現으로 山川草木은 地의 表現으로 그리고 詩書禮樂은 人間의 表現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表現 秩序는 天에 있어서는 氣, 地에 있어서는 形, 人間에 있어서는 道에서 求함으로써 人間에게 詩書禮樂을 나타내는 秩序는 道요 이 道라는 秩序를 具現하는 表現手段이 곧 文이라는 것이다. 徐巨正도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있다.⁶⁾

精一中極 文之體也 詩書禮樂 文之用也 是以代各有文 而文各有體 讀典謨 知 唐虞之文 讀訓誥誓命 知三代之文……

詩書禮樂은 文의 用이므로 한 時代에 한 文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같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敷衍하였다.

文者貫道之器 六經之文 非有意於文 而自然配乎道 後世之文 先有意於文 而或 未純乎道 今之學者 誠能心於道 不文於文 本乎經 不規規於諸子 崇雅黜浮 高明正 大 則其所以羽翼聖經者 必有其道矣

六經之文은 文을 짓는데에 뜻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自然히 道와 짝한 다고 하였으며 그러므로 文을 위한 文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經典에 根本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文以貫道」의 處地를 밝힌 것이다. 또 같은 시대의 金宗直은⁷⁾

詩書文藝 皆經術也 詩書六藝之文 即 其文章也……今之所謂文章者 不過雕篆組 織之巧耳

5) 鄭道傳, 京山李子安陶隱文集序(東文選 卷八九)

6) 徐正巨, 東文選序

7) 金宗直, 尹先生祥詩集序(佔畢齋集 文集卷一)

라 하여 六經之文이 곧 文章이라고 하였으며 오늘날의 文章이라고 하는 것은 한갓 文字를 다듬는 技巧에 不遇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參考로 舊韓末의 文章家로 널리 알려진 李建昌의 所論에 따르면⁸⁾

儒者之學 有二 曰性理 曰文章 文章之學 有二 曰古文 曰時文 時文之學 有二 曰經義 曰詩賦 時文之於儒學 再支而繼別也 而經義猶其嫡也 詩賦又其支庶也

여기서 그는 儒學을 性理學과 文章之學으로 二大別하고 있으며 또 文章之學을 古文과 時文으로 區分하고 있다. 특히 時文과 儒學과의 관계를 論함에 있어 時文은 사실상 儒學에서 分離되어 別途로 繼承이 되어왔음을 示唆하고 있는바, 이는 注目할 發言이라 할 것이다. 時文은 물론 科文을 指稱한 것이다. 經義가 時文의 重要한 內容으로 되고 있고 또 經義는 聖言의 緒餘이기도 하기 때문에 時文에 대하여 극단적인 無用論을 主張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文章을 이미 古文과 時文으로 區分한 李建昌 自身이 古文을 崇尚해 온 文章家라는 처지에서 보면, 한갓 套式的인 文字의 遊戲로 墮落한 당시의 科文을 貶視했던 것만은 事實일 것이다.

이상에서 文章으로 鳴世한 諸氏의 所說을 一瞥해 보았지니와 이는 對經典과의 관계에서 文章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意味를 現實文脈 속에서 찾아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文章을 한갓 小技로만 보아 온 朝鮮時代에 있어서의 文이나 文章은 적어도 六經에 대한 考慮를 그 基盤으로 하는 위에서만 說明될 수 있는 것이어서 近代的인 의미에서의 文學은 容認될 수 없으며 오직 六經을 바탕으로 한 文 또는 文章(사실상 같은 의미로 쓰였음)만이 文學으로 存立할 수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8) 李建昌, 征邁夏課錄序(明美堂集 卷之九 序)

3. 經術 文章 一遵觀

傳統的으로 文翰을 崇尚하는 것이 風尙이 되어 온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科擧制度가 實施된 高麗以後에 있어서는 士類를 試取하여 高級 官僚로 登用하는 것이 制度化됨으로써 우리나라의 政治風土는 사실상 士類 政治로 一貫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風尙은 傳統時代의 學者요 高級 官僚인 知識層의 意識構造에 있어서도 至大한 影響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朝鮮時代의 文學觀을 研究함에 있어 科擧制度의 趨移過程을 考究하는 것은 重要的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특히 科試科目의 變移過程을 追跡하는 作業은 當時의 學問 內容이나 文學觀의 偏向을 溯考하는데 있어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科擧制를 實施한 것은 高麗 光宗 때의 일이다. 周後의 歸化人인 雙冀를 知貢擧로 하여 科試를 보인 것이 그 시초이다. 이때의 科擧는 製述科(進士科)와 明經科의 兩大業이 있었고 雜科로서 醫業·卜業 등이 있었다.⁹⁾ 科試 科目은 製述科에 있어서는 詩·賦·頌·時務策 등 詞章을 科하였으며 明經科에서는 經典을 외우게 하는 것이었다. 科試科目의 內容은 그 時期에 따라 多少의 出入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製述科에는 詞章이 中心이 되었던 것이며 兩大業中에서도 詞章을 科하는 製述科가 明經科보다 훨씬 重要視되었다. 1032년에 새로이 實施된 國子監試(朝鮮時代의 進士試)에 있어서도 그 科試科目은 詞章이 있었다. 이러한 科擧制度의 偏向은 당시 士風의 向方을 크게 刺戟하였던 것으로, 詞章이 크게 興했던 高麗時代의 文風은 결코 우연한 結果의 所致가 아니다 할 것이다.

그러나 朝鮮王朝가 成立되자 國初의 文物制度를 整備하는 過程에 있

9) 高麗史 志卷 選舉一

이 人事政策의 中核이 되어 온 科擧制度는 一대 變革을 가져 오게 되었던 것이다. 새로이 文武散階가 實施되고 文·武 兩科가 아울러 실시되어 名實이 相符한 兩班 官僚體制가 構築되었던 것이다. 太祖는 그의 即位敎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¹⁰⁾

文武兩科 不可偏廢 內而國學 外而鄉校 增置生徒 教加講勸 養育人材 其科擧之法 本以爲國取人 其座主門生 以公擧爲私恩 甚非立法之意 今後 內而成均正錄 外而各道按廉使 擇其在學經明行修者 開具年貢三代及所通經書 登于成均館長貳所 試講所通經書 自四書五經通鑑已上通者 以其通經多少 見理精粗 第其高下 爲第一場 入格者送于禮曹 禮曹試表章古賦 爲中場 試策問 爲終場 通三場相考 入格者三十三人 送于吏曹 量才擧用 監試革去

이 敎書에서 重要的 사항으로 指摘할 수 있는 것은 첫째, 文武兩科의 均衡 있는 運營, 둘째, 高麗의 遺風인 座主門生制와 監試의 革去, 셋째, 官學의 育成, 넷째, 九經이 科試科目으로 登場한 것 등이다. 특히 監試는 高麗時代의 國子監試이며 朝鮮時代의 進士試인 것이다. 이 監試의 革去는 詞章을 崇尚하던 高麗朝의 文風을 抑勒하는 衝擊的인 措處인 것으로 朝鮮時代 文學觀의 形成過程에 있어 重要的 의미를 던지는 것이다. 開國功臣인 新進士類들이 前朝의 詞章을 排擊하고 대신 經典之學을 重視하게 됨에 따라 取해진 당연한 歸結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詞章을 科試하는 進士試 대신에 經典을 科試 科目으로 하는 生員試를 重視하게 된 것이다. 太祖 4年(1396)에 禮曹가 制定한 科擧法에 따라 革罷된 進士試는 그 뒤 世宗 20年에 一時 復活되었다가 6年後인 世宗 26年에 다시 廢止, 端宗 1年에 再復活될 때까지 約 60年 동안 그 迂餘曲折을 겪어야 했다. 이는 大科의 科試 科目에 九經이 登場한 事實과 아울러 朝鮮前期의 文學觀 研究에 重要的 事實로 指摘되어야 할 것이다. 科擧制度의 改革은 外形의으로는 물론 새 王朝의 支配 秩序에 따른 制度的

10) 太祖 卷一 元年壬申 七月丁未

整備作業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創業 理念으로 採擇된 朱子學의 秩序는 新王朝의 政治·經濟·社會·制度·文化등의 思想的 諸體系를 宋代의 性命哲學으로 再編成함으로써 中央集權의인 統治體制의 確立에 決定的인 구실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哲學的 思考는 마침내 文學의 세계에 있어서도 文學理論을 規制하는 支配原理로 君臨하게 되어 文學이 文學 스스로의 內的 秩序에 의하여 그 本質을 辨別하는 契機를 이룩하지 못하고 「文以貫道」나 「文以載道」와 같은 哲學的인 文學觀에 의하여 規制됨으로써 朝鮮時代의 文學理論은 그 形成의 段階에서 부터 萎縮될 수 밖에 없는 宿命을 甘受하게 되었던 것이다. 高麗時代에 있어서는 中期에 접어들면서 形式的으로는 儒敎理念으로 粉飾된 中央集權의인 政治體制가 그 完成을 보았지만, 그러나 이러한 儒敎的인 政治理念은 佛敎의 信仰이나 哲學에 代置할 만한 思想體系의 基盤을 同時的으로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國初에서부터 文風이 크게 떨쳐 우리나라 詞章學의 傳統이 이에 이르러 그 빛을 發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麗末에 이르러 朱子學이 輸入되고 또 이러한 朱子學의 理念으로 武裝된 新進士類에 의하여 새 王朝가 創業됨에 따라 前朝에서 크게 떨친 詞章學의 風尙은 新王朝의 開國功臣인 新進勢力에 의하여 一時에 猛烈的한 攻擊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 攻擊의 砲門을 연 鄭道傳은 다음과 같이 設破하고 있다.¹¹⁾

惟科擧一事 庶幾周禮賓興之意矣 然試以詞章 則浮華無實之徒 得側於其間 試以經史 則迂僻固滯之士 或有焉 隋唐以來之通患也

이것은 詞章學에 대한 攻擊은 물론이고 傳統的인 科擧制 자체에 대하여 不滿을 吐露한 것이다.

그는 또¹²⁾

11) 鄭道傳, 三峯集卷之七 朝鮮經國典上 入官

12) 上揭書 定國本

或有招致技術之士 徒事詞章之學 其所習者 反爲喪心之具 甚者 惟讒諂面諛之徒是信 嬉遊逸豫之事是好 卒無以保其位者 多矣

經術에 뛰어난 선비라고 해도 불러 보면 모두 詞章學을 일삼고 있을 뿐이어서 國本을 定함에 있어 詞章學을 하는 무리들에게 이끌리다가는 끝내는 그 位도 保全하지 못하는 者가 續出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그의 文章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披瀝하고 있다.¹³⁾

恭惟我殿下 自在潛邸時 好與儒士 讀經史諸子 講明義理 論古今成敗之事 甚悉 甚熟 文章雖其餘事 而學問之至 蓋有自得者多矣

文章은 비록 餘事이긴 하지마는 그러나 學問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개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많다고 하여 文章을 學問의 附庸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와같이 詞章을 浮華無實한 것이라 하여 여기에 攻擊의 화살을 집중시킴은 朝鮮前期의 文學觀은 대개 唐宋以來의 「文以貫道」나 「文以載道」를 그대로 受容하고 있다. 唐代的 「文以貫道」는 이미 前項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옛날 聖賢의 著作을 그 標準으로 삼았기 때문에 비록 道를 重히하기는 하였지마는 그러나 역시 文章에 치우치게 되었으며 道는 만드서 文에 依憑해서 나타나는 것이 되었던 것이다(道必藉文而顯)그런데 宋以의 「文以貫道」는 朱子語類에서

文皆是從道中流出 豈有文反能貫道之理 文是文 道是道 文只如喫飯時下菜耳 若以文貫道 却是把本爲末 以末爲本 可乎

라 하여 道와 文을 본과 末의 關係로 把握하고 있어 文은 모름지기 道를 因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文須因道而成) 그런데 朝鮮代에 있어서의 貫道나 載道는 全時期에 걸쳐 混同되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相互異同을 分明하게 指摘한 所論도 찾아보기 어렵다. 「文以貫道」나 「文以載道」는 결국 文과 道의 關係를 論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道를 重히

13) 上揭書 教書

히는 程度에 따라 貫道와 載道の 別의 있는 것이라 하겠다. 前者는 聖賢의 著作을 標準으로 하았기 때문에 文에 치우친 結果가 되었고 後者는 聖賢의 思想을 標準으로 삼았기 때문에 道를 重視하게 된 것이다. 이로 보면 貫道나 載道の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文字行爲는 그것이 文이나 文章이 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詩는 文章의 應者라고 본 것이 當時의 詩觀이었으므로 詩에 관한 문제는 여기서는 일단 論外的 일이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解明이 되어야 할 문제는 貫道나 載道에 있어서의 文字行爲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性格의 것인가에 歸着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聖賢의 道를 나타낸 經術文字가 아닌 모든 文字行爲 卽 이른바 詞章之學과 같은 것은 이 貫道나 載道の 文에서 排除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보면 朝鮮時代에 있어서의 文學觀은 곧 文章觀으로 集約될 것이며 이러한 文章觀에 立脚한 具體的인 文字行爲가 곧 經術文字인 것으로 이것이 朝鮮時代의 文章이며 文學인 것이다. 이러한 文章觀을 당시의 現實文脈 속에서 찾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먼저 估畢齋 金宗直의 所論을 보면¹⁴⁾

經術之士 劣於文章 文章之士 闕於經術 世之人有是言也 以余觀之 不然 文章者 出於經術 經術乃文章之根柢也 譬之草木焉 安有無根柢 而柯葉之條鬣 華實之穠秀者乎 詩書六藝 皆經術也 詩書六藝之文 卽其文章也

세상 사람들은 經術之士는 文章에 拙하고 文章之士는 經術에 어둡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견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文章이라고 하는 것은 經術에서 나왔고 經術은 곧 文章의 根柢라하여 이를 草木에다 比喻하였다. 어찌 根柢가 없이 枝葉이 무성하고 열매가 아름답겠는가. 詩書六藝는 다 經術이요 詩書六藝의 文은 곧 文章이다 라고 하였다. 經典의 文이 곧 文章이므로 經術과 文章을 一道로 본 것이다. 朝鮮

14) 金宗直, 前揭書

前期의 文章觀을 披歷한 代表的인 發言이라 하겠다. 26년동안 文衡의 자리를 固守하면서 당시의 文柄을 잡고 있던 四佳 徐巨正도 이미 前項에서 보인 바와 같이 六經之文은 文을 짓는데 뜻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自然히 道에 착하는 것이라 하여 六經之文이 곧 모든 文字行爲의 典範임을 示唆하였으며 또한 文을 하기 위하여 文을 해서는 아니되고 經典에 그 根本을 두어야 한다고 強調하였던 것이다. 當時의 經世家로 國初의 文物制度를 整備하는데 크게 寄與했던 訥齋 梁誠之도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있다.¹⁵⁾

臣竊惟 經以載道 史以記事 非經 無以澄出治之源 非史 無以考理亂之迹 一經一史 不可偏廢也

理亂의 迹과 出治의 源을 考證하는데 있어 經史가 必須의 業임을 強調한 것으로 經世家의 面貌를 잘 드러 낸 것이라 하겠다. 麗末鮮初에 朱子學을 倡導한 陽村 權近은¹⁶⁾

文在天地間 與斬道相消長 道行於上 文著於禮樂政教之間 道明於下 文寓於簡編筆削之內 故典謀誓命之文 刪贊修之書 其載道一也

라 하여 道가 上下에 널리 行해지면 文은 禮樂과 政教에 나타나고 簡編과 筆削에 留寓하게 됨으로 盛世의 文이야말로 載道의 구실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다. 周가 衰한 以來 道가 行해지지 않아 文이 이에 病들게 된 것을 慨嘆한 것이다. 그리고 慵齋 成俔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¹⁷⁾

經術文章 非二致 六經皆聖人之章 而諸事業者也 今也 爲文者 不知本經 明經者 不知爲文 是則非從氣習之偏 而爲之者 不盡力也

經術과 文章은 본래 두가지가 아니다. 六經은 모두 聖人의 文章이요

15) 梁誠之, 請殿講 兼講史學(訥齋集 卷二)

16) 權近, 三峯文集序(東文選卷九〇 序)

17) 成俔, 慵齋叢話 卷一

業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文을 하는 者는 本經을 알지 못하고 經에 밝은 者는 文을 할 줄 모른다. 이는 氣習이 한쪽으로 치우침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를 하는 者가 힘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文章과 經術을 一道로 본 佔畢齋의 所說과 一致하고 있다. 文章을 하는 자는 모름지기 聖賢의 文章인 六經之文을 힘써야 한다고 強調한 것이다. 朝鮮中期에 文章으로 鳴世한 象村 申欽은¹⁸⁾

文章小技也 於道無當焉 而贊文者 日以貫道之器 何也 蓋雖有至道 不能獨宜 假諸文而傳 然則不可謂不相須也

라 하여 文은 한갓 小技에 지나지 않는데도 文章을 하는 者가 이를 가리켜 貫道之器로 指目하고 있는 所以를 밝힌 것이다. 道는 文을 빌려서만이 傳할 수 있으므로 道와 文은 서로 기다려야 하는 관계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비록 그 時代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舊韓末의 學者요 文章家인 雲養 金允植의 所論도 前記 諸氏의 그것과 다른 것이 없다. 金允植은¹⁹⁾

昔顧亭林先生有言 文不關於經術政理之大 不足爲也 夫經術者 修己之本也 政理者 安民之本也 君子之道 修己安民而已 舍是二者而論文 豈足謂貫之器乎 故文從道出 道以文見 譬如草木之有華者 必有實 無實之華 君子恥之

經術과 政理는 修己와 安民의 根本이므로 이 二者를 버리고는 文을 論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叙上한 諸家의 所說을 통하여 經術과 文章을 一道로 보는 당시의 文學觀 即 文章觀의 一端을 살펴보았거니와 다음에는 이러한 文章觀의 所重處를 再確認하기 위하여 國初부터 그 攻斥의 對象이 되어 온 詞章學에 대한 여러 時論을 아래에 적어 보기로 한다. 물론 이는 詞章學을 崇尚하던 당시 士風의 抵抗力을 間接으로 追認하는 反對事實로서도 說明될 수

18) 申欽, 象村集 晴窓軟談上

19) 金允植, 瓊齋先生文集序(雲養集 卷十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는 당시의 文學觀을 再認識해 하는 傍證資料로서도 충분한 意味를 가지는 것이라 하겠다. 먼저 世宗實錄(19年 6月條)에 나타나는 上疏文의 內容을 보면

司憲府上疏曰…詞章不可以偏廢 然必先究孔孟之言 有餘力然後 可以及之

이라 하여 詞章學의 必要性을 認定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經典之學에 專念하지 않고 浮華한 詞章學에 만 沈潛해 있는 士習의 弊端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記事는 中宗實錄에도 보이는 바

我國 非徒事大至交隣 詞華爲重 不可勸厲之也

가 그것이다. 事大와 交隣에 있어 詞章의 爲重함을 事實로 容認하면서도 그러나 勸厲할 수 없는 事情을 明白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당시 道學으로 士林의 重望을 받고 있던 靜菴 趙光祖의 啓 가운데서 到處에 流露되고 있다.²⁰⁾

然其習俗 只以文辭爲尙 不懷長遠之慮 卒遇廢朝慘酷之禍 士林板蕩 大抵我朝自開國以來 士林之禍不絕 若有君子力於國事 庶幾有成 則無不敗之…

당시의 士習이 文辭만 崇尚한 나머지 마침내 燕山朝에 慘酷한 禍를 당한 것을 想起하면서 君子로서 國事に 힘써는 者가 있어 거의 일이 이루어지는듯 하다가는 모두 失敗하고 마는 당시의 事情을 慨嘆하고 있으며 이러한 責任은 전혀 詞章을 崇尚하는 小人들에게 있음을 示唆한 것이다. 그는 또²¹⁾

近來以不應科舉者 爲有弊習 朝廷及津宮 皆有此意 夫廢朝時 使儒者荷輩 而安然受之 且以詞章不時取人 故儒者常佩筆墨 以伺動止 如此等人 只欲榮身肥己而已 豈有他志哉

20) 趙光祖, 靜菴集 卷四 啓 復拜大司憲時啓 五

21) 上揭書 三拜副提學時啓 四

라 하여 科學에 應하지 않는 것이 弊習이 되었는데도 朝廷과 成均館에서 다 이런 뜻이 있음을 개탄하고 특히 燕山朝에 있어서는 儒者로 하여금 鞿을 깊어지게 하는데도 이를 安然히 받아들이고 더우기 詞章으로不時에 사람을 뽑아 씌으로써 儒者는 항상 筆墨을 가지고 다니면서 눈치만 살피고 있으니 이런 者들은 다만 一身을 榮華롭게 하고 자기 몸을 살찌게 할 뿐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라 하였다. 道學文字를 힘쓰지 않고 詞章만 일삼는 小人輩의 作弊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一聯의 사실에 대해서는 栗谷도 그의 文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있다.²²⁾

士趨爲人之學 才高者 專事乎詞章 才短者 奔走乎科場 六經爲祿之具 仁義爲迂流之路 文不爲貫道之器 道不爲經世之用 文弊至此 則世道之汙隆 從可知矣

선비는 爲人之學에 몰려 들어 재주가 높은 者는 오로지 詞章만 일삼고 재주가 짧은 者는 科場에만 쫓아다닌다. 六經은 祿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었고 仁義는 미나면 길이 되었으니 文은 貫道之器가 되지 못하고 道는 經世의 用이 되지 못하고 있다. 文의 弊端이 이에 이르렀으니 世道가 더러워진 것을 알 수 있겠다고 한 栗谷의 이 말은 詞章을 崇尚하는 士習의 弊端으로 말미암아 科場의 풍속이 더러워져서 聖賢의 六經之文은 한갓 求祿의 도구로 墮落하고 있음을 正面으로 攻擊한 것이다. 그러나 道學者들의 文學觀은 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文章은 어디까지나 餘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文章을 業으로 하는 것은 道學者에게 있어서는 禁物이다. 「한번 文人이라 불리우면 足히 볼 것이 없다」(一號以文人 不足觀)고 한 退溪는 文章은 學者의 教養으로서 알아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애써 익힐 것은 못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니.²³⁾

22) 李珥, 前揭書

23) 李滉, 增補退溪全書 言行錄 卷五

辭達意而已 然學者不可不解文章 若不解文章 雖粗知文字 未能達意於言辭

라 하여 學問을 傳達하는 表現手段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그는 人物을 論함에 있어서도 家學으로 道學의 淵源을 後世에 傳해 준 佔畢齋를 가리켜 文人으로만 看破하였던 것이다.²⁴⁾

金佔畢 非學問底人 終身事業 只在詞華上 觀其文集可知

라 하여 그를 學者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退溪와 더불어 가장 많은 道學文字를 주고 받은 高峯 奇大升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²⁵⁾

燕山朝有士禍 士林被罪 而禍出於其門徒 故宗直及焉 又有金宏弼 是宗直弟子也 宗直則大抵尙文章 而宏弼則力行之人也

라 한 論評은 退溪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 이와 같이 經術文字가 아닌 一切의 文字行爲를 詞章學으로 몰아붙인 道學的 文學觀에서 보면 經術이 곧 文章이요 文學이므로 이러한 文學觀은 極端의으로는 文學 否定論이 되고 마는 것이다. 흔히 詞章學을 가리켜 詩文之學이고 규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詞章學은 이를 가늠하는 標準이 된 것이 곧 經術이므로 經術文字가 아닌 餘他的 文字行爲가 대개 이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詞章學이란 것은 文學의 內的 秩序에 의하여 붙여진 文學樣式上的 呼稱으로 使用된 것이 아니고 文學과 非文學을 가늠하는 文學觀의 所致에서 인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朝鮮時代의 文學觀에서 보면 經術이 곧 文學인 것이며 近代의인 文學理論에서 보면 詞章學이 文學이 될 것이다

4. 重文 輕詩觀

詩는 本質的으로 性情을 읊조린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贅論의 餘地가 없다. 그러나 歷史的으로 詩를 認識하는 時代人의 意識은 그 段階에

24) 上揭書

25) 趙光祖, 靜菴集 附錄 卷三 請褒 贈啓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高麗時代에 있어서의 詩는 그 內實이 重要視됨으로써 詩를 論하는 理論的 展開가 活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朱子學的 思考에 의하여 文學理論이 形成된 朝鮮時代에 있어서는 詩는 小技요 文章의 靡者로 認識되어 왔던 것이다. 이른바 詞章學이 經術文字에 의하여 攻斥의 對象이 되어 온 당시의 風土 위에서, 사신상 詞章의 中核이 되어온 詩文學이 그 獨自의인 領域을 構築하기란 期待할 수 없는 일이다. 傳統時代 文集의 대부분이 詩로서 充當되어 있을 정도로 詩가 置産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없을 수도 있는 것(不可無)이지만 또한 勸誨할 것도 못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찌기 士大夫 文章家中에서도 詩를 教濟하여 君子의 所取物로 受容하려는 노력이 없지 않았다. 古典의인 詩觀의 基盤이 되어온 風教의 側面을 強調하여 그 意義를 賦與하려 한 것이다. 徐巨正은²⁶⁾

詩者小技 然或有關於世教 君子宜有所取之

라 하여 世教에 관계되는 것은 君子로서 마땅히 取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 麗末에서 鮮初에 걸친 過渡的 詩觀을 集約적으로 說明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같은 時期의 金宗直도²⁷⁾

文章小技也 而詩賦尤文章之靡者也 然而理性情達風教 鳴于當世 而傳之無窮 詩賦實有賴焉 苟非豪傑之才 其孰能與於此

라 하여 風教를 傳하는 手段으로서의 詩의 구실을 認定하고 있으나 그러나 진실로 豪傑之才가 아니고서는 여기에 參與하기 어더움을 말하고 있다. 水準 높은 次元에서만 詩를 教할 수 있음을 示唆한 것이다. 退溪도 詩는 賢切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景致나 興을 만났을 때에는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²⁸⁾

26) 徐巨正, 東人詩話

27) 金直宗, 前掲書 永嘉連魁集序

28) 李況, 前掲書

先生喜爲詩 平生用功甚多 其詩勁健典實 不銜華彩 初看似無味 愈看愈好 嘗言
吾詩枯淡 人多不喜 然於詩用力頗深 故初看雖似冷淡 久看則不無意味 又曰 詩於
學者 最非緊切 然遇景值興 不可無詩矣

다 하여 그의 意味를 깊은 곳에서 把握하고 있다. 詩를 다만 性情의 功
으로만 돌린 바 있는 舊韓末의 金澤榮도 또한 詩는 있을 수 없는 것으
로 보았다.²⁹⁾

余讀俱詩 而知詩之不可無也 淫奔之婦 平居對人 諱其踪跡 掩匿覆蓋 無所不至
至有不幸而被逐 則諱之尤甚 此固人之常情也 而今乃一吟咏之間 凡係羞恥而可諱
者 衝吻直出 譬如食中有蠅 吐出乃已 是豈非性情感發油然而躍然 已亦不自知其然
而然者歟 詩之有功於性情 如是夫

飲食中에 과리가 들어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와락 튀어나오는 것
처럼 詩도 마음 속에 羞恥스러워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더져 나오는 것이라 하였다.

文章이나 詩가 다 같이 勸懲의 對象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러나 文章은 道를 傳하는 道具로서 普遍的으로 널리 사용된 表現手段이
지만, 詩는 다만 性情을 吟咏한 것이므로 이는 그 効用의 面에서는 無
用한 것이 되고 만다. 經義가 嫡이라면 이는 支庶에 불과한 것이다.³⁰⁾

그리고 詩는 文에 의해 拘束을 받는 것이므로 詩는 말(詞)을 주로 하
고 文은 理를 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形而上者인 詩는 形而下者인
文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³¹⁾

詩即由文而句爾 詩形而上者也 文形而下者也 詩主乎詞 文主乎理

文보다 詩를 輕視하는 所以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29) 金澤榮, 精刊 韶護堂集 雜言

30) 李建昌, 前揭書

31) 申欽, 前揭書

5. 結 言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唐宋 以來의 文以貫道나 文以載道가 朝鮮 時代의 文學理論의 支配原理로 君臨함에 따라 사실상 文章과 經術을 一道로 보아 온 朝鮮時代에 있어서의 文學은 多分히 否定的인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本稿의 意圖는 대략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朝鮮時代의 文學을 研究함에 있어서는 文學理論의 研究에 앞서 文學觀의 究明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이러한 文學觀과 文學理論의 相須關係를 解明함으로써 미로소 朝鮮時代 文學理論의 脆弱性を 事實로 是認하고

셋째,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本格的인 文學의 內質研究가 遂行되어야 할 것이다.